

[합격기]

안녕하세요. 저는 4년 1개월간의 수험생활을 마치고 초시 동차로 제31회 법무사 시험에 합격한 이순명입니다.

수험생활이 4년 1개월인데 초시에 동차로 합격했다는 말 자체가 모순인 것 같지만 두 가지 모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떻게 4년 1개월만에 초시 동차로 합격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전업으로 공부한 10개월을 제외하고 나머지 3년 3개월의 기간은 잘못된 학습방법과 동기부여로 수험생도 아니고 그렇다고 직장인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서 스스로를 괴롭혔던 시기인지라 저의 잘못된 공부방법과 태도가 다른 수험생분들에게는.. 절대 따라하지 말아야하는 본보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1. 수험생활을 시작한 계기

저는 법대를 졸업하고 대학원시절까지 포함하면 약 7년간 사시를 준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뒤늦게 군대에 입대하고 제대와 동시에 늦은 나이에 취업을 했지만 사시경험자 대부분이 그렇듯이 공부에 대한 미련이 있었기에 법무사 시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다니던 직장은 정년이 보장되는 안정성과 함께 금융권인지라 높은 연봉을 받는 곳이라 변호사들도 신입으로 입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법무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지금 받는 연봉이상의 수입을 얻으리란 보장이 없었기에 다니던 회사에 만족하며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닥치며 여유시간이 많아지자 남는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말고 옛 추억을 되살려서 공부나 한번 해보자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2021년 9월에 10년간 기출문제집을 구입하면서 법무사 시험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뒤로 3년이 넘는 시간동안 단 한번도 법무사 시험에 응시하지도 않았고 저 혼자 수험생활을 한다는 착각에 빠져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3년동안 제가 했던..소위 “삽질”(잘못된 수험생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저의 “삽질”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빨리 그 습관을 버리시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2. 잘못된 수험생활

(1) 명확한 수험기간 설정 및 동기부여 없이 어영부영하는 공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다니는 회사는 연봉과 복지만 놓고 보면 꽤 좋은 곳이었기에 법무사시험을 합격하더라도 중간에 회사를 퇴사하고 법무사 개업을 하는 것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법무사 자격증은 퇴직 이후 노후대비를 위해서 필요한 자격증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 합격해야한다는 절박함이 없었습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했을 때도 정년까지는 아

직 한참의 시간이 남았기에 언제까지 꼭 시험에 붙어야겠다는 기간 설정도 없었고, 코로나 시기에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공부하는게 낫겠다는 생각으로 수험생활을 마치 취미생활처럼 시작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수험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수험생활의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마냥하는 공부는 절대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수험생도, 직장인도 아닌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서 스스로를 괴롭히기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단 직장인 수험생뿐 아니라 전업수험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초심자야 잘 모를수 있지만 최소 몇달만 공부해도 내가 어느정도 공부하면 되겠구나 하는 감이 올 겁니다.(제대로 공부하는게 맞다면 분명 감이 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안에 내가 쏟아부을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안된다면 과감하게 접을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2) 수험생 동호회 활동에 더 집중하는 공부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공부를 시작하던 코로나 시기만해도 수험생 단톡방이 엄청 활발했고 여러개의 단톡방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 공부에 도움이되는 단톡방도 있었지만 정치토론, 개인사 관련 잡담 등 수험 외적인 얘기들이 넘쳐나는 단톡방들이 훨씬 많았고 그런 단톡방 활동은 수험생활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수험생활을 마치 취미생활처럼 여기게 해서 오히려 악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정말 수험관련된 주제로만 정보를 공유하는 단톡방들만 살아남은 것 같고, 저도 마지막에 전업으로 공부했던 시기에 참여했던 단톡방에서는 수험 관련된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본인의 의도와 의지인 것 같습니다. 단톡방도, 그리고 법시모 카페도 정말 수험에 필요한 내용을 검색하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만 활용하셔야지 저처럼 사람들이 무슨 얘기 올리나 호기심에 들락날락하신다면 수험생활은 길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3) 북 콜렉터가 되는 공부

저는 사시 준비할 때부터 책에 대한 호불호가 무척 강해서 저의 기호에 딱 맞는 책을 찾는데 꽤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고시서점에서 수험서 아이쇼핑하는 걸 취미생활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법무사 시험 준비하면서도 이런 습관이 그대로 나와서 특별히 제가 어려워하는 과목에서는 관련된 수험서를 거의 다 구매했습니다. 민법은 이미 예전에 공부했던 과목이라 가장 일반적인 기본서와 문제집만 봐도 마음의 불안감이 없었지만, 전에 접해보본적이 없는 부등법과 민집은 제 마음에 드는 책을 찾을 때까지 여러 강사의 수험서를 구매해서 비교해보고 고민했습니다. 직장인 수험생이다보니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책을 구입하는데 부담감이 전혀 없어서 더 마음

편하게 여러가지 책들을 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잡고 한가지 책을 계속 보면서 공부를 하는게 아니라 이 책이 나한테 맞는지 아니면 저책이 나한테 맞는지 계속 비교하면서 공부하다보니 제대로 정리가 되지도 않고 가뜩이나 직장인 수험생으로 부족한 시간을 이책, 저책 비교하면서 이거봤다가 다시 저거봤다가 하며 허비해버렸습니다.

물론 나에게 맞는 책을 찾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내 입맛에 딱 맞는 책은 세상에 없습니다. 보시는 책이 가장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수험서라면 쉽게 바꾸지 마시고 꼭 필요한 부분만 내가 스스로 커스터마이징하시면서 보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4) 인강에 올인하는 공부

지금은 대인강시대이고 인강없이 하는 공부로 수험생활을 성공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직장병행하는 3년 3개월의 수험생활동안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른 직장인 수험생분들은 주말이나 평일 퇴근 후 시간을 잘 활용하시겠지만 저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있어서 수,금 퇴근 이후와 주말 이틀은 교회에 계속 있었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월,화,목의 경우에도 야근, 개인적 만남, 교회 행사 등으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은 거의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한동안은 아침에 회사에 1시간이라도 일찍 출근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했지만 가뜩이나 수면시간이 부족한 저에게는 맞지 않는 공부법이라 금방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무한 인강듣기였습니다. 이어폰을 귀에 꼽아도 되는 상황에서는 핸드폰을 직접 보지 못하더라도 귀로 인강을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심할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밥먹고, 옷입으며 출근준비하는 시간에도 계속 인강을 들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당연히 들었고,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시간이 있으면 인강을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들은 엄청난 인강 중에 저에게 제대로 인풋된 내용은 많지 않았습니다.

인강을 듣더라도 제대로 책상에 앉아서 화면을 보고 책과 비교하면서 보고 들어야지 제대로 인풋이 되지 저처럼 다른 것을 하면서 듣는 인강이 무슨 도움이 되냐고 생각하실 분도 있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인강 듣기 중에서도 최악의 방법으로 공부했기에 효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강을 통한 공부는 모든 공부법 중에서 제일 효율이 낮은 공부법이라는 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책상에 앉아서 집중해서 인강을 들으며 공부한 적도 있지만 단순히 인강만

들은 것으로는... 사실 저는 그 시간은 공부시간에 넣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강을 잘 활용해서 시험에 단기간에 합격하신 합격자분들도 계신데 그 분들은 인강을 듣기 전후에 연습과 복습. 특히 복습을 잘 활용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인강은 들을 때는 “아 맞다. 그렇지!”라고 다 이해되는 것 같지만 막상 다 듣고 나서 내가 직접 그 개념을 설명하려고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기본서 읽거나 문제집 풀기도 마찬가지로 이긴 하지만 특별히 인강은 더 “내가 다 이해했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게 만드는 공부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이해가 안되거나 강사가 정리해주는 꿀팁이 필요한 부분들은 인강을 잘 활용하시되 강사가 내 대신에 공부해주는 인강 학습법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 10개월간의 전업수험생활

(1) 전업을 하게된 계기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인해서 저는 제대로된 공부를 하지 못했고 22년부터 24년까지는 아예 법무사 시험에 응시 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5년에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저를 지방으로 발령을 냈고 지방에 갈 수 없는 저는 부득이하게 퇴사를 결정하고 전업수험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하에서는 전업수험생활을 하면서 최소한의 시간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노력했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 기출문제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공부

1월부터 전업을 시작한 저는 실직상태가 길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동차로 시험을 붙겠다는 각오로 전업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2월초까지는 2차 공부도 병행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오전에는 2차 동차반 인강을 듣고, 오후에는 1차 공부를 했습니다.

이당시에는 24년에 노베이스 동차로 단기간에 합격하신 두분의 여성법무사님의 합격수기가 카페에서 아주 핫한 이슈였기에 저도 해볼만 하다는 생각을 했고, 이때 박문각에서 2차 올패스 인강도 결제를 하고 2~3순환은 모의고사를 응시해서 온라인 첨삭도 받아보아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가가졌습니다.

그런데 2월 중순으로 넘어가면서 1차 문제집 위주의 1차공부가 어느정도 제 궤도에 오르게 되니깐 1~2차 동시 준비가 결코 만만치 않고 1차 문제집에만 시간을 올인해도 벅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수, 금 저녁과 주말은 교회 일정으로 공부를 할 수 없어서 하루에 순공 시간에 주말 제외하고 평일에 적을때는 6시간, 많아봤자 10시간이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완전히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병행이 가능하실지 몰라도 제 상황에서 1~2차 병행은 도저히 무리이었던 생각에 2차 준비는 접고 1차 문제집 풀기에만 몰두했습니다.

대부분의 1차문제집들은 강사분들이 직접 만드신 순수 모의문제는 거의 없고, 법무사 기출문제, 법원시행 유관시험 기출문제, 변시 기출문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문제들을 강약 조절하지 않고 모두 동일한 빈도로 풀었습니다. 하지만 3회독에 다가갈 때 즈음에 강약 조절없이 문제를 푸니까 정작 제일 중요한 법무사 기출문제를 소홀히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유관시험 기출문제도 중요하지만 출제 확률 및 빈도를 보면 법무사 기출문제의 중요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원시행 시험이더라도 엄연히 법무사 시험과 다른 시험들은 출제 경향이나 난이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3회독을 마칠 때 즈음에는 과감히 문제집을 더 보지 않고 최근 5년간 기출문제를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에서 다운받아서 실제 시험문제와 동일한 양식으로 풀었습니다. 그리고 1차 시험 합격에 이 방식이 큰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만으로는 절대 합격할 수 없는 시험이라고들 말하지만 최소한 법무사 기출문제만이라도 내가 정확하게 숙지하지 않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절대 합격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기출문제는 시험의 시작이자 끝이니 절대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꼭 내 것 만드시길 바랍니다.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1차뿐 아니라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는 법무사 기출문제가 그대로 동일하게 출제되지 않기에 1차보다 중요도가 떨어지지 않냐는 얘기들이 있고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법무사 시험 기출문제는 변시 등 따 시험과는 또 다른 법무사 시험만의 고유한 출제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강사들이 얘기해주는 출제경향을 듣고 판단하기 전에 내가 먼저 기출문제를 직접 풀어보고 어떤 방식으로 시험이 출제되는지 경향성을 파악하는 것이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1차시험 점수가 합격 예상 컷트라인을 넉넉히 넘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처음에는 학원 모의고사 문제를 계속 풀다가 추석때에는 기출문제를 풀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풀어본 기출문제가 실제 시험에 당연히 나오진 않았지만, 기출문제를 풀면서 “아 해볼수 있겠구나”하는 자신감도 붙었고, 어떤 식으로 답안을 구성해야할지 감도 잡았던 것 같습니다.

(3) 실전 연습의 중요성

1차 문제집 2회독을 끝냈을 때가 6월 정도였습니다. 그전에는 제 실력이 부족하다는 두려움이 있었기에 모의고사 응시가 꺼려졌지만 2회독은 했으니 한번 응시해봐도 되겠다 싶어서 7월에 학원 봉투 모의고사를 구입해서 풀어보았습니다. 실제 학원에 가서 모의고사를 응시하지는 못했지만 같이 공부하던 형님과 함께 모의고사 스터디를 조직해서 7월과 8월에는 학원모의고사와 기출문제를 실제 시험시간과 동일하게 설정해서 OMR 카드도 작성하면서 실제 시험장의 느낌을 살려서 풀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모의고사 문제가 실제 시험에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모의고사나 기출문제를 통해서 실전 연습을 하다보면 시간배분이나 집중력 저하 등 실전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깨닫게 되고 보완이 가능합니다. 인생을 건 법무사 시험은 1년에 딱 한번 응시할 수 있으며, 그 한번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실전과 비슷한 환경으로 계속 모의 연습을 해본다면 실제 시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사전에 차단, 보완,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2차는 준비기간에 짧았기에 실전 모의고사는 단 한번도 치뤄보지 못하고, 답안지도 정식 답안을 작성한게 아니라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약식으로만 작성해봤지만 그래도 그 방식이나마 실전 준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 동차로 합격하지 못하고 재시를 봐야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2차도 정기적으로 자체 모의고사를 보면서 실전연습을 했을 것 같습니다.

(4) 법전(조문)의 중요성

법무사 시험은 판례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고 강사분들이 항상 강조해주시고, 실제 시험 출제 경향을 봐도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성문법이 우선인 대륙법 체계를 따르고 있고, 판례는 법조문의 해석을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따라서 조문의 내용도 모르면서 판례부터 우선적으로 공부하려는 방법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차에서는 법전이 주어지고, 법전은 2차 시험장에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2차 준비를 하면서 2개월의 기간동안에 판례를 암기해서 현출하기에는 무리라고 생각해서 사례마다 이슈가 되는 법조문의 위치를 미리 숙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민소, 형소, 형법 모두 너무 예전에 공부했던 과목이라 조문 자체가 생소했고, 모의고사와 기출문제에서 논점이 된 조문들은 시험용 법전을 사서 해당 조문을 형광펜으로 칠하면서 최소한 위치라도 익숙해지고 시험장에서 빨리 찾을 수 있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2차 시험에서는 민소와 부등에서 조문만 잘 구성해서 쓸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조문의 내용과 위치를 숙지해두시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5) 1,2차 시험 성적

1차는 소위 "야매"로 공부하긴 했지만 그래도 3년이 넘는 준비 기간이 있어서인지 처음 응시한 25년 1차 시험에서 컷라인보다 넉넉한 점수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차 시험은 준비기간도 짧았고 2달 동안 공부하는 시간보다 내가 과연 동차로 붙을 수 있을까?하는 불안감을 이기기 위한 마음 다잡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인지 거의 문 닫고 들어오는 수준으로 겨우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참고삼아 캡쳐해둔 1차와 2차 성적표를 첨부

합니다.

시험명	제31회 법무사 제1차 시험
응시자명	■■■■■
주민등록번호	■■■■■*****
응시번호	■■■■■

과목명	헌법,상법	민법,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	민사집행,상업등기및비송사건절	부동산등기법,공탁법
점수	84	66	70	70

평균	72.5
합격선	64.5
합격여부	합격

시험명	제31회 법무사 제2차 시험
응시자명	■■■■■
주민등록번호	■■■■■*****
응시번호	■■■■■

과목명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사건서류작성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서류작성
점수	50.5	19	30.75	28.25	17.75	38	19.5

평균	50.9375
합격선	50
합격여부	합격

5. 큰산아 평지가 되리라.

회사를 그만두고 늦은 나이에 전업수험생이 되면서 솔직히 너무 많이 불안했습니다. 내가 정말 맞는 선택을 한 것인지, 장수생의 길로 들어서는건 아닌지 순간 순간 답답하고 우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던 교회의 25년 신년 표어가 바로 스가랴서 4장6~7절 말씀을 기초로한 "큰산아 네가 평지가 되리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끌어가실 분도 하나님이기때 저는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하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험생활을 하면서도 평일예배와 주일예배 그리고 교회에서 제가 감당해야하는 활동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1차를 앞두고 8월초에 여름수련회가 있었고 수련회 준비 스텝으로서 7월에는 거

의 매일 저녁에 교회에 모여서 회의를 했고, 2차를 앞두고 추수감사절에 제가 담당하는 중고 등부에서 기획한 뮤지컬 연습을 위해 또한 거의 매일 저녁에 교회에 갔습니다.

일반적인 전업수험생과 비교하면 무척 불리한 위치에서 공부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천 수험생 분들은 수험생활과 신앙생활을 어떻게 지혜롭게 조절해야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것입니다. 정말 내 인생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이 있으시다면 수험생활은 위기가 아니라 내 삶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수험에 대한 불안감으로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그럴 때일 수록 더 당당하게 나의 믿음을 드러내며 믿음을 먼저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저와 같은 처지에 있으신 수험생들이 있으시다면 절대 믿음의 용기를 잃지 않으셨으면 합니다.